

만남

2019년 2월
통권 169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2년이라는 시간-----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	4
그리스도인의 유머	-----	7
교리	사회교리의 이해-----	8
기도 소개	삶의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2월 기도지향》

❖ 보편 지향: 인신매매

인신매매, 강제 매춘, 폭력의 희생자들이 너그러운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Schema®

2년이라는 시간

질문 하나. “세상에서 제일 길면서도 제일 짧으며 제일 빠르면서도 제일 느리고 아주 잘게 쪼갤 수 있으면서도 제일 크고 가장 하찮게 여겨지면서도 잃어버리면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일까요?”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볼테르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리면 가장 아쉬운 것’이라는 부분이 목울대에 살짝 걸려 넘어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시간이 달리는 속도가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10살이면 시속 10킬로, 60세이면 시속 60킬로. 그런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함부르크로 오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다지 한 일도 없는 데 시간만 축내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긴 여기에 함께 살러 온 거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결과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혼자만 편하고 쉽게만 살아온 듯 느껴져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은 휴가, 안 가시나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따로 휴가를 갈 이유가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알았다는 듯이 고개는 끄덕이지만 ‘참 특이한 분이네요.’ 하고 미처 말하지 못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긴 스스로 생각해도 조금은 별종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시간은 흐릅니다. 집 안에서 컴퓨터 화면만 보고 살아도, 바깥을 돌아다니며 세상 곳곳에 스며있는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살아도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만 제대로 보낸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늘 되돌아보면 후회만 잔뜩 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2년”과 “아직 2년”은 그 느낌의 정도가 틀립니다. ‘벌써’라는 표현에는 그만큼 바쁘게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지만 아쉬움도 배어나옵니다. ‘아직’이라는 표현에는 지루함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안에는 희망도 응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시간은 ‘벌써’도 아니고 ‘아직’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루카 5,1-11)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8장 “주님을 부르던 날”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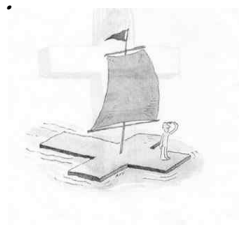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소서.
- ❖ 주님,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5 1 예수님께서서 겐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 2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 3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 4 예수님께서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 5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 5 5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6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 7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 8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 9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 10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 11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어떻게 노력합니까?
- ✿ 우리는 이웃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나중에 베드로(반석)라고 불리게 되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좀 더 배움이 깊고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왜 부족함의 전형인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을 위주로 제자들을 모으실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선생님”(히브리어는 랍비, 그리스어는 디다스칼로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보다 더 높이는 “스승님”(에피스타테스)이란 존칭을 사용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루카 5,5)

시몬의 답변은 오늘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일깨우는 명언입니다. 곧 아무리 노력해 봐야 도무지 결과가 안 보일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저 시몬처럼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청해봅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8장 “주님을 부르던 날”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흑인의 비애

어느 흑인 신자가 하느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 검은 피부를 주셨나요?”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야 아프리카 정글에서 밤 사냥을 나설 때 어두운 밤에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하고 또 아프리카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자네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지.” 이에 흑인 신자는 또 물었습니다. “하느님, 그럼 제 머리는 왜 이렇게 곱슬곱슬하죠?” 하느님께서는 “그건 자네가 정글 속을 뛰어다닐 때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거나 덩불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지.” 그러자 흑인 신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그럼 왜 저는 시카고에서 태어난 거죠?”



4. 사회교리, 그 오해와 진실

사회교리는 과연 ‘사회’에 관한 문제일까요? 시선을 오로지 사회로 돌려 자신과 교회의 실천은 돌아보지 않은 채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오해 때문에 사회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더러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사회에 나가서 이야기하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길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교회의 자리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사회교리는 ‘사회’에만 국한된 교리가 아니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간,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라는 공동체 안에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사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교리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일종의 ‘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은 ‘믿을 교리’와 ‘지킬 계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교리는 ‘지킬 계명’에 해당하고, ‘덤’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본당 단체나 구역, 반모임, 본당 사목협의회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내 모든 교계제도와 나아가 직장과 지역사회, 개별국가에서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계명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사회교리 자체를 터부시합니다. 하지만 사회교리가 ‘사회’에만 국한된 교리가 아닌 것처럼 세속과 종교의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지도 않고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와도 어긋납니다. ‘정교분리’란 국가가 특정 종교의 이념을 절대화하여 종교가 이데올로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다시 말해 종교가 본래의 고유한 기능을 잃고 하나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회교리는 우리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신앙의 온도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교회 가르침을 배우고,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사회교리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회교리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교리에 반감을 갖거나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면 교회의 신앙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교리에 대한 나의 이해, 혹은 나의 오해는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까? 복음입니까? 세상입니까? 여전히 많은 신자분들은 사회 안에 살아가면서 음모론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론을 신앙생활 안에까지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마태 6,26)

5. 당신의 실천 온도는 몇 도인가요?

우리는 흔히 윤리(倫理)와 도덕(道德)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둘은 약간 다릅니다. 윤리가 사람과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면, 도덕은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학문에 비유하자면 윤리는 원론이요, 도덕은 각론이고, 마차에 비유하자면 윤리는 마차의 바퀴이고, 도덕은 그 바퀴를 굴러 목표점을 향해 나아간 자국이라 하겠습니다. 도덕적 실천을 위해 올바른 목표와 그에 도달할 수단을 제공하는 윤리가 필요하지만, 도덕이 되지 못한 윤리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윤리 원칙 중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법입니다. 법의 토대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인 윤리가 자리하며, 그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령 헌법과 같은 법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그에 따른 인권과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보호합니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실천적인 규정들도 직접적으로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지는 않지만, 인간 생명의 보호라는 가치를 간접적으로 지향합니다. 이처럼 법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윤리적 가치를 강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최소한을 위한 마지노선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바는 아니지요. 따라서 법만 잘 지킨다고 도덕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회가 법에 담고자 하는 윤리적 가치의 내용, 혹은 그 마지노선과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윤리적 가치의 마지노선은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성당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윤리규범은 단순히 국민의 의식변화나 인식확산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윤리적 가치를 담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고 있습니까? 그 가치가 신앙인인 나에게도 타당합니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윤리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윤리원칙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내 입맛에 맞게 고치면서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지요?

과연 내 실천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6. 당신의 노동은 존중받고 있습니까?

첫 인류의 이름 ‘아담’은 땅이나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하느님께서 흙을 빚어 만들었으니 흙에서 나왔다는 뜻이기도 하고, 평생 땅을 일구어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닌 ‘땅의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느님의 인류 창조는 땅을 일구고 흙을 빚은 노동으로 시작되었고, 인간에게 땅을 일구어야 하는 노동의 사명을 맡김으로써 일단락됩니다. 인간은 땅을 일구며 노동을 통하여 자연을 돌보고 만물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람은 땅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동하는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더욱 인간다워지고 또한 더욱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갑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씌워진 죄의 굴레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멋진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선 교회가 항상 가르쳤던 원칙, 즉 노동이 자본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입니다. 생산과정에서 노동은 항상 주요한 동인(動因)이 되지만, 생산 수단의 집적인 자본은 다만 하나의 도구 또는 도구인(道具因)이 될 뿐입니다. 이 원칙은 인간의 역사적 체험의 총체에서 얻은 명백한 진리입니다.”(노동하는 인간, 12항)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 없는 노동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는 노동이 자본보다 우선적이고 우위에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뜻에서 자본은 인간의 노동에 봉사해야 하고, 경제는 인간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건전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인간의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주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이 존중받기보다는 토지에 대한 이익과 주식 등 자본에 대한 이윤이 더 손쉽고도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 심지어는 자본 이윤을 위해 인간 노동이 희생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회교리는 해고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연한 사회에서 경계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작가미상)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용한 이 아침에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마음을 살피 진실로 참회하게 하시고

당신의 평화를 얻게 하소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자비하신 주님!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복잡한 욕망으로

마음은 바쁘고 자신에게조차 친절하지 못합니다.

분노와 미움에 괴로워하면서도 참회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보살피 주십시오.

크고 작은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복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참회와 용서를 통한 평화를 얻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리 저리 흔들리는 의식 속에도

늘 주님과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과

주님께서 맺어 주신 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화해의 손길을 수수하게 내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질문

저는 사제성소 지망자인 청년입니다. 근래에 혼란스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주위 친구들이 “너 좌파가 되려고 하는 거냐?”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마음으로 사제가 되려고 하는데 사제들은 다 좌파라는 말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또 신학교에서는 오로지 해방신학만 가르친다는데 정말 그런지요? 그리고 해방신학이 정말 좌파 이론인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형제님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 말이 무기인 전쟁, 서로가 상대방에게 적개심을 품고 몰아붙이는 여론 전쟁이 한창인지라 아직 사회생활의 저변을 보지 못하는 형제님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우파도 좌파도 아닌 ‘그리스도파’란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파냐 좌파냐 하는 논쟁은 체제론을 말하지요.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면 우파이고, 사회주의 체제 지향적이면 좌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반론보다 더 수준 낮은 논쟁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어쨌건 우리 교회는 우파도 좌파도 아닌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파란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즉 체제 지향적이 아니라 말씀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느님 나라 구현이 우리 교회의 목표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산 독재 국가에서는 가톨릭 사제들이 목숨을 걸고 국민들의 자유를 얻기 위해 항거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같은 가톨릭의 지성인들이 탐욕스런 자본가들에게 경고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하신 주님 말씀은 이를 위한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천민 자본주의도, 폭력으로라도 혁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공산 좌파 세력도 아닌 오로지 세상을 하

느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염원으로 사회 복음화를 위한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좌파 혹은 보수 우익이라고 비난하는 세력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타도 대상이나 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회개의 대상,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서 어느 이념에서도 따라오지 못할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있기에 형제님은 사제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종교인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또한 신학교에서는 한쪽으로 편중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생들은 철학과 신학, 성서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다년간 공부함으로써 단순히 종교인만으로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적인 지성인으로 양성되고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방신학이 좌파 이론이란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요. 해방신학을 좌파 운운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역사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란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학 사상은 역사적 배경 하에서 생기는 것이기에 남미의 혹독한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그야말로 찌라시 수준의 지식으로 해방신학을 좌파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해방이란 것은 이미 구약의 이집트 탈출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노예적 삶을 사는 것에 대해 하느님께서 마음 불편해 하심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신학 사상이 해방신학이기에 해방신학이 생긴 배경은 이미 수천 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주님 역시 해방신학을 구현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하신 분이란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좌파냐 우파냐 하는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는 탁상 논쟁에 지나지 않으니 그런 이야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물어져 가는 고성(古城)의 아름다움(살레시안 칼럼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꾸게 되는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기를 맞이하겠다는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굴 가득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노인, 그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는 여유와 평화로움, 삶의 모든 이치를 달관한데서 온 넉넉함과 너그러움, 다가가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황홀하면서도 부드러운 석양 같은 그런 노인.

그러나 현실은 어디 그렇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고집에 강해집니다. 절대로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삶은 우울한 회색빛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젊은 시절부터 노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년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평소에 전혀 그렇지 않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유 있고 아름다운 노인으로 돌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대체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 모습 그대로 안고 나이를 들어갑니다.

젊을 때부터 마음 다스리는 연습을 잘 한 사람의 황혼은 찬란합니다. 젊을 때부터 침묵할 줄 알고 기도의 맛을 들인 사람의 노년은 풍랑 속에서도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이 둘은 젊은 시절부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렁찬 애기 울음 소리가 새어나오는 이웃집을 바라볼 때마다 속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웠습니다. 힘겨울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뭔가 다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며 큰마음으로 하느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즈카르야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르야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즈카르야는 한 순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큰 의혹을 품고 고개를

가로로 흔들었습니다. 자신과 엘리사벳의 나이가 너무 늦었기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즈카르야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해?’ 하고 포기합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를 하느님께 맡겨드리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포기합니다. 아예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어버립니다.

어느 새, 우리나라도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와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노인들께서 지니고 계신 풍부한 경험과 그냥 썩히기에는 아까운 지혜를 잘 활용할 방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그러나 노인들 입장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목숨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마셔야 합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어떻게 해서든 움직이셔야 합니다. 육체의 소멸과 반비례해서 영적인 영역의 성장이 커져가야 합니다. 내 안에 세상 것은 점점 작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커져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늙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입니다. 소멸과 죽음에 대한 의미의 추구입니다. 훌륭하게 나이 드는 일은 고도의 기술입니다. 잘 늙은 방법을 젊은 시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잘 늙은 방법,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실천여부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나를 힘겹게 하는 그 무언가를 놓아버리기,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약해짐을 미소로 받아들이기, 불가능해보이지만 나 자신을 넘어서기 등.

투명한 아침 햇살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석양은 더욱 찬란합니다. 휘황찬란한 도시도 멋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어져가는 고성(古城)은 그에 못지않게 멋있습니다. ‘나’란 인간 존재를 아름다운 명품으로 형성시켜나가 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 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안 스 카 (St. Aansgar)	이 경 규	10일	스콜라스티카 (St. Scholastica)	조 영 희
	블라시아 (Blaise)	이 희 자			
5일	아 가 다 (St. Aagatha)	문 경 영 정 순 화	16일	율리안나	안 지 영
			18일	마리아나 (St. Mariana)	한 말 조
			24일	마티아스 (St. Mathias)	이 도 영
7일	리 차 드 (St. Richard)	박 춘 실 Groensel	26일	이사벨 (St. Isabel)	이 다 윤

❖ 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일	요 안 나 (St. Joanna)	이계선(H)	5일	아 가 다 (St. Aagatha)	허윤선(O) 정금선(B)
			9일	알렉산드	문지훈(H)
4일	요 안 나	이순자(H)	10일	스콜라스티카	이정자(H) 오윤숙(H)
			16일	율리안나	송윤아(H) 이경의(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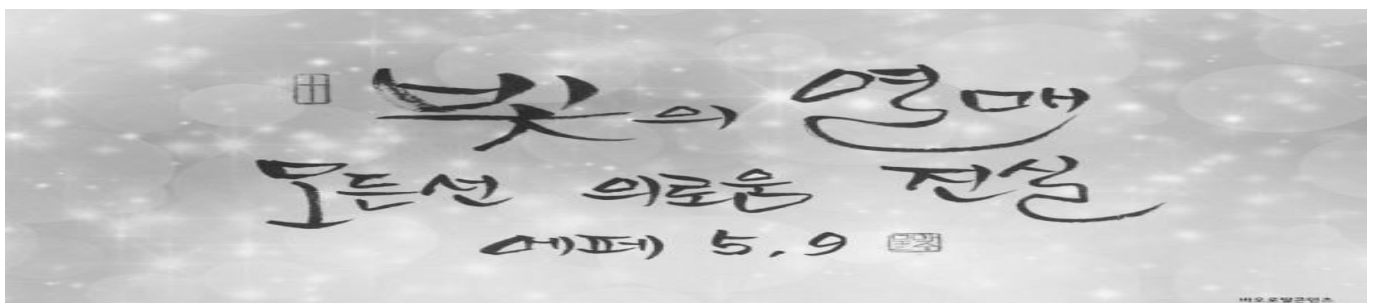


❖ 2월 성가번호 ❖

2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3일	46	211	182	416
10일	21	216	498	451
17일	434	210	160	4
24일	찬 양 미 사			

❖ 2월 미사 전례 봉사자 ❖

2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3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4구역
10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허길조(안드레아스) 이명자(가밀라)	주일학교	청년회
17일	이정훈(요나스) 김한솔나(리드비나)	김잔디(아그네스) 김경미(이사벨라)	청년회	요셉 마리아회
24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주일학교	1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2월 23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30일
주일헌금	238.29	170.70	350.00	239.90
헌납금				860
2차 헌금			264.15	
구좌입금	12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420.00 * 헌납금 합계 1,280.00			
주 일	1월 1일	1월 6일	1월 13일	1월 20일
주일헌금	284.72	251.20	251.72	256.15
헌납금		440.00	140.00	550.00
구좌입금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총 1,150.00 * 헌납금 총 합계 2,280.00			

❖ 자진헌납금 ❖

2018년 12월 20일 - 2018년 12월 31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현금납부 : 정순문, 김경미, 김건, ◆ 구좌입금 : 박종래,

2019년 1월 1일 - 2019년 1월 20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현금납부 :

최장용, 방은일, 이수웅, 진윤희, 김효정, 신옥희, 서세원,
 황영선, 이종하, 이정수, 강순행, 손수희, 우동천, 이공종,
 김민옥,

◆ 구좌입금 :

정정숙, 허두옥, 이정훈, 이명원, 이상봉, 김치수, 최현봉,
 허길조, 이석우, 권지연 Rabe, 홍경영, 김대현, 남궁춘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2월 2일 토요일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이 날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10시에 만남성당에서 미사와 초 축복식이 있습니다. 신자분들 가정에서도 사용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하실 초가 있다면 축복을 받기 위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2월 3일 일요일 주일미사는 설날 합동위령미사로 예수성심성당에서 봉헌합니다. 미사 후에는 함께 세배를 하고, 설 음식나누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음식 하나 씩 준비해 주셔서 음식나누기에 함께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2월 5일 화요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 날, 10시에 설날을 맞이하여 만남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날, 저녁미사 후에는 믿음의 샘 뿌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4. 2월 8일 금요일에는 2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있고, 2월 10일 주일미사 후에는 청년 소공동체 모임이 있으며, 2월 13일 수요일에는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모임, 2월 22일 금요일에는 4구역 소공동체 모임, 그리고 28일 목요일에는 연령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5. 2월 9일 토요일에는 Kulturabend 행사가 18시에 Kleine Michel 성당에서 있습니다. 미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미사 때 '좋기도 좋을시고' 성가를 부를 예정이오니 함께 해주시길 청합니다.

6. 2월 10일 일요일 주일미사 후에 사목월례회가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7. 2월 21일(목)부터 2월 24일(일)까지 Königswinter Mariahof에서 제15차 여성 꾸르실료 교육이 있습니다. 박연심(가브리엘라), 김효정(율리안나), 두 분의 자매님께서 교육에 참여하십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길 청합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새해 첫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미사 후에 설 잔치로 박영희(소피아)자매님께서 교우들에게 선물로 내신 떡국을 모두들 맛있게 먹었고, 신부님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노래, 게임 등으로 선물도 받고 즐거운 신년을 맞이하였습니다.
3. 지난 1월 총무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자매님께서 70세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많은 축복과 건강하시고 행복된 생활되시길 기원합니다.
4. 2월 미사는 2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1월 공동체 미사는 1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봉헌했습니다.
4. 2월 공동체 미사는 2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2019년 1월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미사는 1월 12일 토요일에 주님 세례 축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이날 미사에는 Bramsche에서 김명숙(카타리나) 자매님과 한승제 형제님이 오셔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3. 공동체 기도모임은 1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재홍(요셉), 안수경(프란체스카) 가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4. 2월 미사는 2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Pernickelmühle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 록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주 일 학 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 비 자 교 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민음의 샘 Cu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t.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이순자(마리아)
	평화의 모후 Pt.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t. (정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 무	신옥희(비아)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 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 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육종인(베로니카)	
			총 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준병(바오로)	
			부회장	강새벽(에스텔)	
			총무	한승종(스테파노)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은희(안나)	
여성 봉사회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2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금			
2	토	주님 봉헌 축일 (봉헌 생활의 날)	10시 미사(만남성당)	브레멘 공동체
3	일	연중 제4주일		
4	월	입춘		
5	화	설	믿음의 샘 뿌리아	10시 미사
6	수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7	목			
8	금		2구역 소공동체	
9	토		Kulturabend(kleine Michel, 18시)	오스나브뤼크
10	일	연중 제5주일	사목월례회, 청년 소공동체	
11	월			
12	화			
13	수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14	목	성 치릴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		
15	금			
16	토			하노버 공동체
17	일	연중 제6주일		
18	월			
19	화	우수		
20	수			
21	목			제15차 여성 꾸르실료 Königswinter Mariahof
22	금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4구역 소공동체	
23	토	성 폴리카르포 주교 순교자 기념일		
24	일	연중 제7주일	찬양미사	
25	월			
26	화			
27	수			
28	목		연령회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넷째 금요일 16시 00분(4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